

## 한-볼 리튬산업위원회 주제발표 및 회의참석

-주대영 연구위원 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
- 출 장 자 : 주대영 연구위원 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- 출장기간 : 2010. 11. 08~11. 13 (2박6일)
- 출장지역 : 볼리비아 (LA PAZ), 아르헨티나 (BUENOSAIRES)
- 출장목적 : 한-볼 리튬산업위원회 주제발표 및 회의참석
- 기타 : 한-볼 리튬산업위원회에서 주관하며,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리튬소재산업화 추진협의체 대표들이 참석

### 출장 일정

- 2010. 11. 08 ~ 09 : 서울 → LA → MIAMI  
→ LA PAZ (9일 아침 7시 도착)
- 2010. 11. 09 : 볼리비아 광업부(장관 : Jose Pimentel)에서 리튬소재 산업화에 대한 주제발표 및 한-볼 산업협력 회의

- 2010. 11. 10 : LA PAZ 출발 → LIMA → BUENOSAIRES 도착
  
- 2010. 11. 11.
  - 오전 : 아르헨티나 광업부에서 광업차관(Dr. Jorge Mayoral) 등과  
리튬개발 관련 협조요청 및 양국 자원협력 확대방안 논의
  
  - 오후 : BUENOSAIRES 출발 → LIMA → LA → 서울 도착(13일)

## □ 주제발표 주요내용

- 볼리비아가 리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.
- 향후 10년간의 전략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하되, 1단계는 볼리비아가 탄산리튬 생산을 위한 Pilot Plant를 조기에 건설하고 최적의 리튬 추출 기술을 학립해야할 것임.
- 2단계는 우유니 염호의 탄산리튬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할 것임. 이 단계에서는 탄산리튬의 추출 과정 및 가공을 통해 얻어지는 각종 리튬화합물 및 부산물의 이용 방안도 구체화돼야 함.
- 3단계에서는 우유니 염호 리튬의 저품위로 인한 경제성 부족을 극복하고, 해외의 지배적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세계시장에 볼리비아산 리튬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프로젝트 체제가 구축돼야 함.
- 추진과정에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 자본, 기술, 인력 등을 상당부분 의존해야 할 것이며, 이를 위한 법제도적의 개선이 필요함.
  -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에 좀 더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,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필요함.
- 리튬 추출 및 관련 기술과 산업 연구를 위한 연구소 및 기술훈련원 등의 설립도 필요할 것임.
- 우유니 염호와 산업단지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, 철도 등의 수송 시설과 전력, 용수 등 인프라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임.

○ 한국기업의 볼리비아 투자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

- 벨류체인상 리튬 소재에 가까운 후방산업(Upstream)부터 생산하여 점차 추가 확대
- 여기에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탄산리튬을 이용하는 양극재 부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초기에는 국내업체의 컨소시엄 형태 진출로 리스크분산
- 투자목적의 중점을 수익성보다 리튬 확보에 두는 것이 바람직
- 현지 기술인력이 전무하므로 사전교육 및 인력양성 필요
- 한국정부의 기업지원 방안 마련 필요